

광주시·자치구,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

오늘부터 19일까지 720건 조사... 위반시 과태료
 “불법행위자 엄중 처벌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광주시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8일부터 19일까지 부동산 실거래 의심 자료에 대해 정밀조사에 나선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월부터 정밀조사 대상자 2095명(720건)에게 거래계약서, 대금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자금 조달 증빙

(중여, 부동산 처분, 대출 등) 등 실거래가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자치구별로 검토중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출장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조사 대상 720건을 유형별로 보면 ▲국도교통부의 실거래 의심 390건

▲주택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 거짓신고 의심자 318건(미성년자 주택취득 10건, 30세 미만자 3억 원 초과 주택취득 200건, 6억 원 이상 주택 취득 58건, 보증금 승계 및 대출없이 기타차입금으로 거래 등 50건) ▲공인 중개없이 직거래한 12건이다. 정밀조사 결과 실거래를 위반한 경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

다. 분양권 전매 제한을 어긴 자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원활한 정밀조사를 위해서는 조사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조사과정에서도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 불법 행위자는 엄중 처벌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윤희기자



김용집 의장, 제8대 후반기 의정모니터단 간담회 개최
 김용집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 지난 5일 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제8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정모니터단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운영계획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원 통합...신규 재단 설립 본격화

문체부·문화전당·문화원 TF 구성해 통합 논의 국회 통과 ‘아특별 개정안’ 9월께 본격 시행 될 듯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별 개정안) 통과로 법 시행이 예정되는 9월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통합, 문화전당재단 신규 설립 등 조직개편 작업이 본격 논의된다. 동시에 문화전당(문화전당)의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올해 신규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따르면 아특별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의결돼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전당·아시아문화원으로 구성된 TF팀은

아특별 개정안 통과에 따른 조직 개편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아특별 개정안은 지난 2월26일 가카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통과된 법은 오는 10월께 공포돼 6개월 이후인 9월께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문화전당이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소속기관으로 규정했으며 콘텐츠 등 일부 수익사업 기능은 신규 설립되는 아시아문화전당 재단이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TF는 법 시행 전에 현재 2개의 조직으로 구성돼 있는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통합 작업을 서두른다. 조직 통합에 따른 인력 규모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신규 설립되는 문화전당재단의 역할과 성격 등을 규정 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해 9월 새문 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한 때 법 통과가 미뤄져 사업 중단

이 우려됐던 문화전당의 2021년도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문화전당은 관람객 이동동선 개선을 위해 하늘마당에서 전당내부로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를 진행한다. 또 야외 콘크리트 난간을 유리 난간으로 교체하고 라이브러리파크, 어린이문화원 체험관, 옥상정원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활용도를 높인다.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전당 투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람객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문화전당 관계자는 “아특별 개정안 처리가 미뤄져 자칫 문화전당의 올해 사업이 중단 될 수 있었는데 국회 통과돼 차질이 없게 진행 할 수 있게됐다”며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TF가 구성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윤희기자

동구합창단 신규단원 15명 위촉

광주 동구는 구민의 정서향양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동구합창단 신규단원 1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합창단 모집공고를 통해 총 21명이 지원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실기 및 면접심사를 통해 15명의 단원을 최종 선발했다. 이번에 새로 추가 위촉된 단원은 소프라노 3명, 알토 4명, 테너 1명, 베이스 7명 등 15명이다. 이로써 전체 합창단원 48명으로 동구합창단이 꾸려 앞으로 더 풍부하고 다양한 소리로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화음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 '202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광주 서구가 적극행정 제도 정착 및 주민 체감형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2021년 서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직사회 실질적 변화와 주민체감형 적극행정 완성'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적극행정 추진기반 강화 ▲적극행정 평가 및 보상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척과 등 4대 추진분야 13개 핵심과제를 수립했다. 서구는 '2021년 서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코자 분기별 이행 추진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계획이다.

남구, 공직 퇴직자·전문가 평생교육가로 양성

광주 남구는 5일 “경력과 노하우를 갖춘 퇴직 공직자와 민간 전문가를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내리사랑 지혜나눔 평생교육 활동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20명 이내이며, 신청서는 남구청 7층 교육지원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관내에 거주하는 교원 및 공무원 퇴직자와 중장년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교육 분야 및 예체능 활동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강의 경력을 갖춘 사람이다. 남구는 시대변화에 따른 관내 주민들의 다양한 학습 욕구 충족과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내 전문인력을 확보, 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 등 교육 소외계층에게 평생교육 활동가를 지원할 방침이다.

북구,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

광주 북구는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할 기업과 청년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북구는 올해 행정안전부 공모에서 확보한 13억 9200만 원을 투입,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9개월 동안 최대 1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북구 소재 중소기업과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다. 모집분야는 기존 중소기업 분야를 포함해 산업단지, 드론, 지식서비스, 4차 산업 등 5개 분야이다.

광산구, 시민행복동아리 지원사업 공모

광주 광산구가 19일까지 '2021 시민행복동아리 지원사업' 대상 단체를 모집한다. 시민이 취미·취향 중심으로 소통하고, 공동체 활동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지원사업의 골자. 광산구는 20개 내외 모임을 선정해 80~2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성원 5인 이상이 광산구민이거나 광산구 직장인에 다니는 동아리 등 모임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지원사업에는 뮤지컬, 우쿨렐레, 독서, 스포츠, 봉사모임 등 10개 단체가 참여했다.

임형택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조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합니다.

1.발전설비용량 : 99.50kw
 2.사업개시예정일 : 2021.12
 3.사업운영기간 : 2021.12~2046.12(예정)
 4.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2021.03.05.~2021.03.15.까지 전남 목포시 미항로 191-4 2층 일양산업 으로 인적사항과 의견을 기재하셔서 우편으로 송부하시거나, 이메일:ilyang00@daum.net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발전소명	6.신청인	7.용량(kW)	8.발전소 위치 및 면적
1 신원리8호 태양광발전소	성영자	99.50	전남 나주시 봉황면 신원리 615-2 1,346㎡/143.67㎡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5분위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고소득층 저소득층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인건공단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하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99%를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해관계에서 지킨 승진입니다.